



오인회 소식

2018년 6월 (제81호)

권두언 (卷頭言)

깨어있는 자의 삶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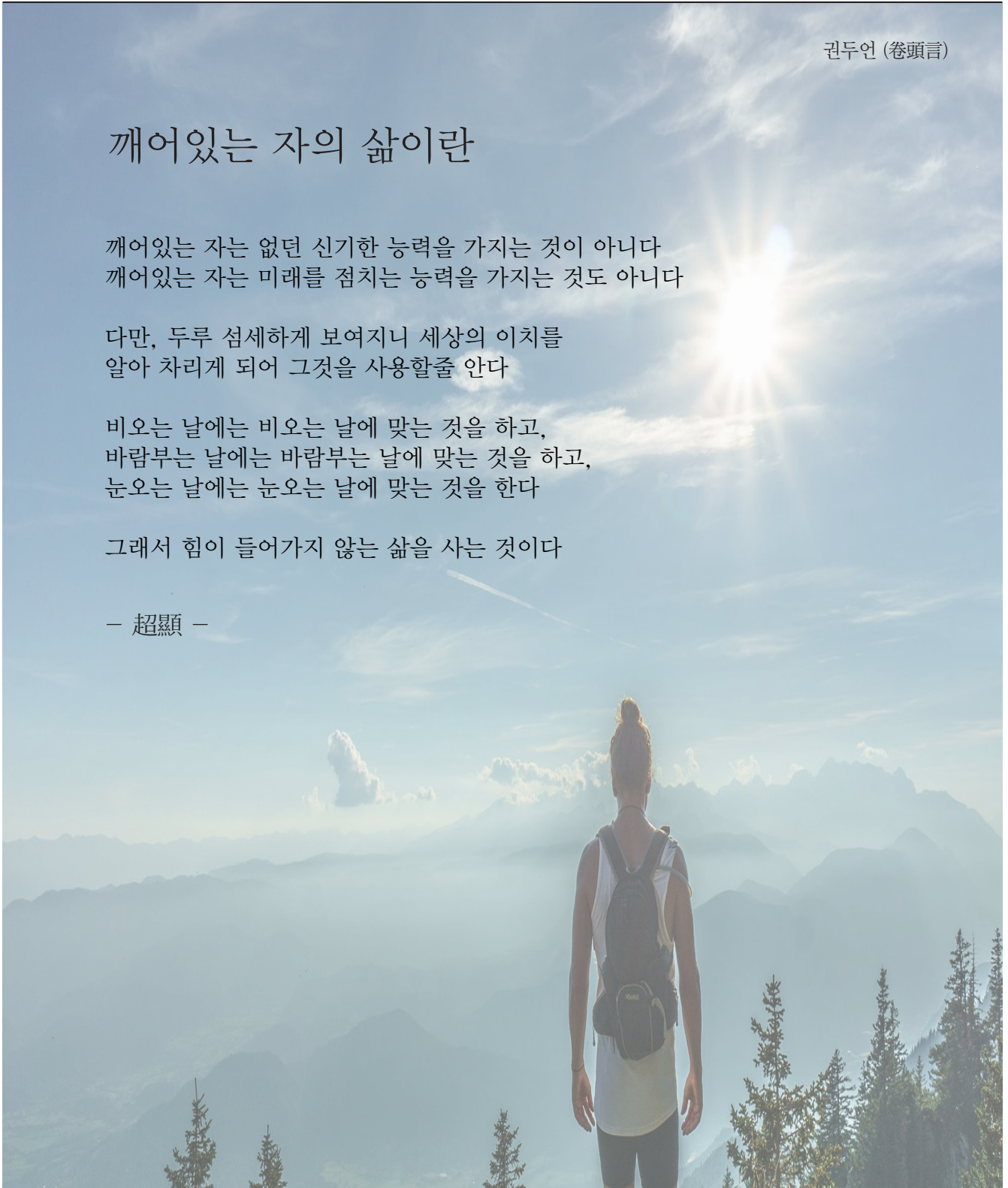
깨어있는 자는 없던 신기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깨어있는 자는 미래를 점치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두루 섬세하게 보여지니 세상의 이치를
알아 차리게 되어 그것을 사용할줄 안다

비오는 날에는 비오는 날에 맞는 것을 하고,
바람부는 날에는 바람부는 날에 맞는 것을 하고,
눈오는 날에는 눈오는 날에 맞는 것을 한다

그래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 超顯 —



* 홀로스 공동체 후원 현황 *

홀로스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홀로스 운영 후원 내역

○ 일반후원

6월 11일 선호 1만원 / 6월 11일 류창형 3만원 / 6월 13일 권오인 10만원 / 6월 20일 여행 1만원 /
6월 20일 다르마 200만원 / 6월 27일 장경옥 10만원

● 공동체학교 후원 내역

○ 일반후원 (기보 100만원/ 연주 60만원, 바람 300만원, 지원 100만원, 자명 170만원)

○ 월정기후원 (매월 20만원 2년간/ 별칭 뒤에 숫자는 월 후원 횟수 입니다)

- 일반 (익명1/24, 익명2/24, 능주20, 솔내음16, 무유17, 고을18, 서원17, 여몽18, 원님18,
기보18, 쎄이14, 허유16, 거위16)
- 기타 (가온19, 구당18, 자현18)

<공동체학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신현이)

●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 안내

번뇌즉보리 총서 2권이 준비 중입니다.

(대승기신론上 출판 완료, 中 출판비 : 450만원 / 현재 후원액 4,673,102원 (上출판 이월금 215,451
원, 능주40만원, 우현 254,500원, 기보 100만원, 금산스님 50만원, 나무 30만원, 고을 100만원,
원님 100만원)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계좌> 농협 351-0680-1315-13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신현이)



개인을 위하는 것이 곧 전체를 위하는 것이 되도록...

솔내음 인터뷰 3

솔내음님은 20대부터 자신의 강도높은 '분노'에 대한 궁금증으로 마음공부자리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명상/참선/위빠사나/아빠타코스/에니어그램/꿈분석/간화선/인도 마두반에 있는 영성대학교, 브라마쿠마리스 라자요가 기초·중급과정 명상/깨어있기/통찰력게임...등등. 그리고 화요오인회와 수요일오인회에 참석하면서 한 주간의 주제를 품기에서 점점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실시간 마음작용을 볼 수 있고 크게 걸림없는 일상, 감사가 많아졌습니다. 토종씨앗(농업)/천연발효의 세계(음식)/교육을 나란한 자리, 세 축을 중심으로 살고자 합니다. 지금은 충북 단양군 도담삼봉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당장 이 세상 소풍길 마치더라도 큰 아쉬움이 없기를...' 내가 품고 사는 기도다.♡

허: 그러면 나라는 그 느낌이 혹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솔: 간화선 집중수행 7박8일을 00선원의 스님을 모시고 동국대 국제선센터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2012년 여름예요. 회사일로 머리가 정말 아팠을 때, 그때 7박8일 집중수행을 갔었죠. 그때 주어진 화두가 스님이 손가락을 구부려 보이시고 '이 손가락, 이게 무엇이고? 이게 뭐꼬?' 였는데, 주신 화두를 깨면 2박 3일이나 3박 4일 안에 나가고, 못 깨면 7박8일을 꼬박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2박3일 되니까 몇 명 나가고 3박4일쯤 되니까 또 몇 명 나가고 그랬어요. 당시 한 100여명 정도 있었는데 오기처럼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3박째인가 4박째인가 아침부터 밥 안 먹고 저녁에도 안 먹고 잠 안 자고 그냥 무릎에 쥐가 나고 죽을 지경인데 이 악물고

가부좌 수행자세로 버티었어요. 그랬더니 온갖 많은 망상들 속에 있다가, 한 순간에 아픈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느낌도 뭐도 없는 허공 같은 공백 상태가 되면서 딱 하나, '마음이잖아!' 이 말이 들렸어요. 이 음색 하나가 들리면서 그냥 다 분해되고 하나도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느낌을 한 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스님과 인터뷰하고 빠져나왔지요. 수료증을 주셨고요. 그 경험이 한 번 있었네요.

허: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 경험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든지 파악되는 게 있으신가요?

솔: 제가 마음공부를 하니까 가까운 도반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도반들은 무념무상, 열반, 그런 경험과 표현을 많이 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다른 나라 언어 같았지요.

언젠가 수요일 오인회에서 월인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도 이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월인 선생님도 허유 님과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자기'라는, '마음'이라는 갖추어진, 조건지어진, 경험된 여러 가지 작용과 연결된 어떤 결과물들이 지금의 내 느낌이나 기분이나 나의 판단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힘, 실체라고 보면, 같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마음이나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나라는 것이 조건지어진 지나가는 프로세스, 과정 중의 한 지점일 뿐이라는 것이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허: 그러면 요즘에는 나라는 그 주제랄까, 예전에 느꼈던 공부가 공부를 안 했을 때의 무게감이나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셨겠네요?

솔: 많이 달라졌죠. 저는 제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행복해야 남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저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허: 지금은 이 '나'라는 것이 '마음의 느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솔: 네. '나'라는 것은 느낌이고 '과정'이고 그냥 지나가는 순간순간이지 '틀지어진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늘 '마음먹고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마음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을 공격했거든요. 그 공격의 이면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라는 방점이, 기존에 갖고 있던 '내가 있어야 세상이 가능해! 또는 행복하게 있을 수 있어.'라고 했던 그 강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그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그 '나'라고 내세우는 그것이 거의 백지가 되어야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허: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남과 구별되는 나로써 그 존재가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된다는 것이지요?

솔: 네. 그렇습니다.

허: 내가 있지만 그건 하나의 조건지어진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떨어져나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나요?

솔: 네.

허: 알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못 하신 얘기가 있으세요?

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인터뷰 요청하셨을 때, 맨 먼저 '아직 때가 아닌데, 내가 나눔 해 드릴게 없는데'라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그렇더라도 바로 '인터뷰 과정에서 내가 자각해낼 것이 있을 테고 발견해낼 게 있을 테니깐 그냥 하지, 뭐.' 이렇게 고쳐서 대답했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내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도움 받을 수 있을까하는 마음을 되게 간절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이 공부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시간과 인연으로 때가 되서 무르익어가는 것 같다고 정리가 되었어요.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주변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죠. 오인회 명칭이 그런 뜻이잖아요. 자신이 깨닫고, 다섯 명에게 자기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로 하여금 내 주변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고 문을 두드리면 그런 저런 일들이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허: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부담을 느꼈지만 곧 가벼워진 이유가 부담을 느낀 그 ‘나’가 파악된 건가요, 염려됐던 그 순간에는 마음의 현상으로 파악된 게 아니고 나에 간혀 있었다는 그런 상태 같으셨던 건가요?

솔: 이런 거예요. 오인회 소식지에 실린 인터뷰를 읽어보면 내용이 되게 울림이 크거든요. 매 순간 겪어왔던 그 상황들이 읽을 때마다 아주 진솔하게 다가왔고 그 과정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간접적으로 제가 느낀 점이 되게 커요. 내가 아는 인터뷰라는 건 그런 힘이 있는데 내가 인터뷰로 그런 울림을 줄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관성도 그렇고 깨어있기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잣대로 뭔가를 매끄럽게 해결한 느낌이 안 든 사람인데 인터뷰를 할 만한가 싶었어요.

허: 그것도 역시 하나의 자기의 조건지어진 마음에서 나타난 느낌이라는 것이 지금은 명확하신가요?

솔: 네. 그래서 바로 ‘그래, 그렇더라도...’ 하면서 ‘그렇다면 그런대로 또 나를 볼 수 있을 테고 나를 느끼겠지. 뭐’ 이렇게 이제 바로 자각이 고쳐져서 올라오는 거죠.

허: 그동안 공부하신 게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웃음) 예전 같으면 부담감 때문에 사양했을 거예요.

허: 알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두 시간이 흘렀네요. 끝으로 정리해서 오늘 인터뷰 소감이나, 도반분들이나 본인이 하신 공부 중에 이렇게 하면 도움될 것 같다는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주십시오.

솔: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큰 주제 하나로 나의 생각, 결정, 모든 방향이 나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로운 것인가를 이 주제를 꼭 품고 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감정적, 여러 가지 생각, 판단들이 결국 조건지어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나와 동일시해서 밀어붙이거나 경계하거나 그런 고집은 안 부리겠다, 잘 짚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는 매주 자기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문제들을 주제로 뚜렷이 한번 질문으로 던져놓고 방편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되더라, 실제로 내가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편이더라, 그것이 어찌면 제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공부에서 유익한 도구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허: 본인의 문제점은 다 해결하신 거네요, 그쵸?

솔: 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허: 알겠습니다.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말은 아직 안 된 부분도 남아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솔: 한 1년 동안 제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화를 한 번도 안내고 뒤집어지는 상황이 없으면 다 해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것이 12개월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다 되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거지요.

허: 아직도 화를 낼 수 있는 ‘나’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남아있다는 말씀이세요?

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요. 한 12개월 살아보고 한 번도 그러지 않으면 자신 있게 ‘네’ 그럴 텐데 아직은 기다려봐야지요.

허: 감정이나 생각이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파악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일어나는 바탕인 ‘나’는 어떤가요? 그 바탕이 되는 ‘나’는 어떠세요?

솔: 그 ‘나’가 엄청 강력하고 최근에 가장 가까운 도반한테서 ‘김서진이 자기에 빠져서, 불건강한 에니어그램 2번과 4번 유형으로 변해있어서 안타깝다. 예전에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카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당황스러웠죠.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내면을 잘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 되게 강해요. ‘나’라고 하는 꼴이 어떤 형태든 간에 나는 이래야 되고, 이게 나고, 저거는 절대 내 것이 아니고, 그런 강한 잣대에서 자기에라고까지 친한 도반이 짚었을 때는 헛소리는 아닌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걸렸지요. 그것도 최근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나라는 것에 대해서 1년을 딜레이했던 것이 도반의 진단과 동일시로 기존의 막 고집했던 그 '나'와 2018년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지금 궁금한 거예요.

허: 그 '나'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조건으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파악하신 거잖아요.

솔: 네.

허: 그럼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죠?

솔: 그것이 그 순간에 동일시된 나였죠. 그 도반은 나와 엄청 친한 도반이고 제 신념, 저를 해코지할 사람도 아니고 저를 나쁘게 말할 사람도 아닌데, 저 조심스러운 도반이 나를 두고 그런 말을 했네! 저것은 헛소리가 아닐 텐데! 뭐가 문제지? 뭐 이런 것이 밀착되어서 제가 잠시 불편했던 거지요.

허: 지금은 어떠세요?

솔: 그러고 나서 바로 편안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것이 나의 동일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바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허: 동일시라는 조건에 의해서 그런 불편함이라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이 이해되었군요. 그것이 이번 연말까지 그런 일이 얼마나 생길지 그걸 한 번 지켜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솔: 네. 그렇지요. 그렇게 세심히 지켜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허: 알겠습니다. 시간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솔: 감사합니다. (끝)

대승기신론(64) - 2013년 7월 23일 강의

월인 (越因)

불교를 비롯해서 공부하는 모든 곳에서 초기에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 가르칩니다. 악한 마음을 멀리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라고 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악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 놓고, 듣는 이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듣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강의하는 훈습에도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나오는 무분별(無分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부와 이승인(二乘人)은 아직 분별 속에 있어 무분별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식훈습(意識熏習), 즉 분별사식훈습(分別事識熏習)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고, 한 단계를 지난 초발의보살(初發意菩薩)은 무분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업식훈습(業識熏習)을 통해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체용(體用)의 훈습이 진여훈습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진여훈습이란 본질이 환상에 쌓여있는 나를 훈련시키거나 물들여서 본질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본질 그자체인데도 본질로 향하게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아직 본질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훈련해서 바꿔야하고, 본질을 터득하거나 깨달아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본질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가 따로 있고, 본질의 세계인 열반과 환상의 세계인 생사가 따로 있고, 생사를 떠나서 열반으로 가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진여훈습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식 자체가 분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진여문의 절대세계에는 아무런 분별도 없지만, 그 절대 본질이 현상화한 생멸문의 진여는 생사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속의 진여이기 때문에 전달되거나 물들이는 훈습이 가능한 겁니다.

훈련과 노력, 그리고 공부를 통한 성취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세계는 분별의 세계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과 이룬 사람을 나누고, 어떤 상태를 향해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선사들은 “거기에 어떤 분별도 없다. 분별은 환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별이 없는 그 세계는 그냥 절대일 뿐입니다.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애쓸 필요도 없고, 어딘가를 향해 갈 필요도 없어요. 이처럼 사뭇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진여훈습에 섞여 있습니다. 자기의 본질이 분별없음이라는 걸 언뜻 본 사람한테는 절대적 세계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미 너는 완벽해. 애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이 자리가 이미 본질의 자리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애써 노력해서 수행을 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선악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분별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분별없음을 본 사람한테는 선악이 없죠. 선악 자체가 개념과 분별의 세계의 내용이니깐요. 지금은 선악이 있다는 전제아래 훈련과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분리 자체가 환상이라는 건 이전에 진여문에서 다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있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는 절대적 마음이 있고, 이것저것에 흔들리고 동일시되고 감정에 시달리는 그런 분별하는 마음이 있죠. 분별하는 마음속에 있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옳은 얘기이지만, 분별을 떠난 상태에서는 이 얘기는 모두 거짓입니다.

此體用熏習, 分別復有二種. 云何爲二.

차체용훈습, 분별부유이중. 운하위이.

이 체용(體用)의 훈습을 분별함에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둘인가?

一者未相應. 謂凡夫二乘初發意菩薩等, 以意意識熏習, 依信力故而能修行. 未得無分別心, 與體相應故, 未得自在業修行, 與用相應故.

일자미상응. 위범부이승초발의보살등, 이의의식훈습, 의신력고이능수행. 미득무분별심, 여체상응고, 미득자재업수행, 여용상응고.

하나는 미상응(未相應)이니, 범부와 이승(二乘)과 초발의보살 등은 의(意)와 의식(意識)의 훈습으로 믿음의 힘에 의하는 고로 능히 수행을 하지만, 무분별심(無分別心)과 체상응(體相應)을 하지 못하는 때문이고, 아직 자재업(自在業)의 수행과 용상응(用相應)이 안되기 때문이다.

체용(體用)의 훈습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체용(體用)은 본체, 그리고 그 쓰임이나 작용을 말합니다. 체상응(體相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질과 상응하지 못하여 아직 깨닫거나 체득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범부와 이승은 의식훈습(意識熏習)을 통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분별사식훈습(分別事識熏習)이라고도 하죠. 뭔가를 의식한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분별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 앞에 있는 탁자와 컵을 나눌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둘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나눔을 기반으로 하는 훈련이 분별사식훈습인데, 범부와 이승, 즉 분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방불교에는 위빠사나와 사마타가 있습니다. 사마타를 주로 하는 곳에서는 생사와 열반을 나누고서 열반을 향해 가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처음이 집중 훈련입니다. 하나의 사물만을 바라보며 다른 모든 생각을 잊도록 하죠. 오직 그 사물에 대한 집중만 남았을 때, 그 사물마저 사라지게 함으로써 ‘없음’으로 갑니다. 집중이란 다른 모든 경계를 멈춘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분별을 멈추는 게 사마타죠. 분별사식훈습도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를 나눠놓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상태로 가도록 애써서 노력하고 수련하게 만듭니다.

초발의보살(初發意菩薩)은 의훈습(意熏習)을 합니다. ‘식(識)’이 없고, 오직 ‘의(意)’만 있는데 업식훈습(業識熏習)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능견상(能見相)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견분(見分/주체/보는 자)과 상분(相分/대상/보이는 자)이 동시에 생겨남을 파악하여 능견상을 떠난 것이죠. 능견상은 타고난 업식(業識)때문에 저절로 생겨나는데, 이 능견상이 생겨나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듭니다. 주체와 대상을 떠난 보살들은 업(業)으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진 사람들이라 분별사식을 하지 않고 업식훈습(業識熏習)을 하게

됩니다. 주체와 대상은 만들어진 느낌이라는 상(相)에 대한 체득이 이루어지면, 물려받아 뿌리박힌 습관인 카르마, 관성, 업식(業識)을 다루는 작업을 하는 거죠. 견분(見分)과 상분(相分), 즉 주체와 대상으로 나누어서 분별하고 느끼는 것이 의식(意識)이죠. 그런데 주체와 대상으로 나뉘기 이전에도 미세한 느낌의 나타남과 사라짐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업식(業識)입니다. 식물과 동물은 그런 미묘한 느낌을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분별보다 명료하지 않은 분별을 사용하는 거죠. 명확하게 나뉜 주체와 대상을 다루는 것이 의식(意識)이라면 그런 고정된 경계가 없는 것이 업식(業識)이고, 모든 분별되는 세계는 거짓된 경계에 의한 것이며, 우리의 근본은 경계 짓는 망념(妄念)을 떠나 있음을 파악하는 게 바로 의熏습(意熏習)입니다.

위빠사나를 통해서 의熏습(意熏習)의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위파사나는 관찰을 뜻하는데, ‘위빠’는 ‘나누어진/둘’의 의미입니다. 주체와 대상으로 나뉜 걸 뜻하죠.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집중 훈련인 사마타를 통해서 갑니다. 어떤 의문에 몰입되어 있으면 저절로 집중, 즉 사마타가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절실한 주제를 가진 사람은 위빠사나를 하면 됩니다. 주체와 대상에 대한 관찰을 지속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관찰자마저도 관찰되고 있음을 파악하는 거죠. 누가 파악하죠? 관찰자 자신이 파악합니다. 현상인 관찰자가 자신이 현상임을 파악하는 게 바로 위빠사나의 맨 마지막 일입니다. 법의 본체를 증득한 사람을 법신보살(法身菩薩)이라고 하는데, 법(法)의 본체는 능견상(能見相)을 떠나는 것, 즉 분별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범부(凡夫)와 이승(二乘)은 분별을 통해서熏습하고, 보살은 미묘한 느낌의 세계인 업식(業識)을熏습합니다. 생사와 열반을 나눠놓고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여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 분별사식熏습입니다. 보살은 주체와 대상이 동시에 생겨나며 서로 의존적인 존재임을 파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너와 나로 구별하면서 살아온 업(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동적인 패턴과 습관을 뚫고 나아가도록 하는 게 업식熏습입니다. 관성을 다루는 거죠.

범부와 이승과 초발의보살은 의(意)와 의식(意識)의熏습으로 믿음의 힘에 의존해서 능히 수행을 한다(凡夫二乘初發意菩薩等, 以意意識熏習, 依信力故而能修行.)고 했습니다. 이들은 무분별(無分別)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아직도 미묘한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수련과 수행은 믿음의 힘에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모르니까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믿음의 힘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려면 정말로 고개 숙여지고 믿음이 가는 사람 밑에서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스승에게 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가게 하는 믿음의 힘이 나오질 않죠. 분별이 없는 마음과 본체에 상응하는 마음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힘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분별심(無分別心)을 얻게 되면 수행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굳이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요. 하려는 의도가 있는 동안에는 ‘하려는 나’와 ‘얻어야 하는 대상’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분별의 세계입니다. 의도는 음양(陰陽)에서 태극(太極)으로 갈 때 필요한 거예요. 이 현상세계는 둘로 나누어진 음양의 세계입니다. (+)와 (-), N극과 S극, 구심력과 원심력, 물질과 반물질, 정신과 물질, 남과 여, 주체와 대상, 이렇게 대치되는 두 개의 현상이 서로를 존재하게 해주는 동전의 양면 같은 세계죠. 이런 음양(陰陽)에서 태극(太極)으로 갈 때는 의도와 노력과 믿음의 힘이 필요하지만, 태극에서 무극(無極)으로 가는 것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삼매, 무심(無心)을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텅 빈 마음에 있다가도 다시 ‘나’라는 게 의식되는 세계로 나올 수 이유는, 텅 빈 마음도 미묘하게 나와 대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태극이죠. 순수의식이나 텅 빈 마음을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체험하는 자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투명해 보이지만 체험과 체험자로 미묘하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음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극(無極)으로의 전환은 애써서 ‘나’를 없애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없애려는 그 의도 자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눠 놓고 있죠. 도달해야 될 어떤 곳과 그렇지 못한 내가 있고, 노력해서 그곳으로 가려는 의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분열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태극은 무분별심(無分別心)이에요. 순수하고 투명한 의식만 남고, 의식의 내용이 없고 분별이 없는 마음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동시에 발생하며 주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체득하여 무분별심을 얻으면 수행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분별없는 마음을 오래도록 유지하거나 더 깊숙이 들어가면 저절로 무극(無極)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극(無極)으로 툭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마음을 얻은 사람은 수행이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태극에서 무극으로 갈 때는 다시 돌아올 나인 투명한 경계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재업(自在業)은 자유자재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재업과 작용에 상응하는 마음은 노자(老子)에서 말하는 '무위(無爲)의 위(爲)'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한다.'의 속 의미는 '내가 한다.'는 것 없이 한다는 겁니다. 움직이고 작용하되 '내가 한다.'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나를 위해서 한다.'가 있으면 분별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또,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해서 하더라도 그 안에 '내가 한다.'가 있으면 분별심입니다. '무위(無爲)의 위(爲)'는 무분별심이에요. 자재업(自在業)과 용상응(用相應)은 바로 '무위(無爲)의 위(爲)'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본질로 향하는 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의 길, 헌신의 길, 무위(無爲)의 길입니다. 지혜의 길은 분석하고 철저하게 실험하는 탐구의 길이죠. 즈나나 요가(Jnana Yoga)라고 합니다. 요가는 신과의 합일이라는 의미인데, 지혜를 통해서 합일로 가는 게 즈나나 요가입니다. 불교가 이에 속하죠. 그 다음 헌신의 길은 박티 요가(Bhakti Yoga)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믿고, 자기를 숙이고, 바치는 거죠. 정말로 믿게 되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노나 두려움, 괴로움과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됩니다. 헌신이란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서 그 어떤 것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올라와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강한 사람은 헌신의 길을 가는 게 좋습니다. 잘 따지지 못하고, 분석이 귀찮고 복잡하게 여겨지면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 대신 자기의 어떤 생각도 바로 내려놓을 수 있게 믿음의 힘이 강해야 하죠. 기독교나 이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되 내가 하는 것 없이 하는 무위(無爲)의 길은 카르마 요가(Karma Yoga)입니다. 자재업(自在業)은 쓰임새에 '나'라는 것이 없이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르마 요가에 해당합니다.

분별은 양날의 칼입니다. 모든 괴로움이 분별 때문에 생겨나고, 모든 지혜도 분별 때문에 생기죠. 아주 철저한 분별을 통해서 가는 게 지혜의 길이고, 분별을 내려놓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게 헌신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무분별을 얻고 가는 거예요. 따지지 않죠. 그런데 불교 같은 종교는, 범부나 이승이 따지고 물어서 분석하는 지혜인 분별사식의 단계를 거쳐야 무분별심, 즉 보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같은 헌신의 종교는 처음부터 믿고 따르라는 요구에 툭 고개를 숙이고 따르잖아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고개를 숙였다면 무분별심을 얻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헌신의 길이 정말 빠른 길이지만, 정말로 믿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무위(無爲)의 길인 자재업(自在業)과 용상응(用相應)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意)와 의식(意識)의 혼습을 통해서 갑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홀로스 공동체학교와 청년백일학교 소식

홀로스 공동체 동정

올해 첫 감자를 캐했습니다.

아침 일찍 감자수확에 나섰습니다. 심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하늘은 햇빛과 비를 내려주어 감자를 이리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히 주고 있습니다.



청향관 위의 감자밭입니다



감자를 담고 있습니다



한뿌리에 이렇게 여러개가 달립니다.



풍성한 감자를 수확했습니다. 함양에 오시면 언제든지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숙소가 완성되어 준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숙소 이름은 물들지 않는 맑은 마음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청향관(淸香館)입니다. 이곳에서 지내게 될 스텝들, 프로그램을 위해 방문하는 오인회원들의 맑은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청향관 현판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정면 마당 쪽입니다



후면 출입구 쪽입니다

호요님의 고소공포증 극복기



백일학교 청향관(淸香館) 건축중 공사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호요님이 20여년간 가져온 고소공포증을 순식간에 극복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숙소 건축 마지막 정리를 도와주시던 호요님이 처음에는 지붕 끝 가까이도 가지 못하다가(9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사진 중에 왼쪽에서 2번 째 사진) 점차 주의를 안전한 발 끝에 모으면서 발을 들고 지붕 끝에 한발로 설 정도가 되었습니다(왼쪽에서 3번 째 사진). 호요님은,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고소공포증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를 넘어가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의 원리를 일상에 적용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가볍게 느끼며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리란 '주의를 불안한 곳에 두지 말고 안전한 곳에 두라'입니다. 물론 두려움이란 나/대상 간의 관계에서 오는 일종의 '느낌'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보면 그것도 역시 마음속 하나의 현상일 뿐임을 보게 되고 그때 더 철저한 넘어감이 되겠지만, 여기서의 방법만으로도 현상적인 두려움을 넘어가는 것은 충분하기에 소개합니다.(이 연습은 호요님이 안내자를 깊이 신뢰하고 기꺼이 그 말에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안내자를 더 믿고 연습에 따라주었기에, 자신의 믿음의 힘이 발휘되어 이 과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의 표면적인 절차만 따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 대상에게 이 과정을 적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모습은 백일학교 학생들과 스태프들을 위한 숙소인 청향관(淸香館) 건축을 감독하던 호요님이 지붕작업을 함께 하며 그동안 느끼던 두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백일학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마음을 보고 그것의 원리를 공부하며 더 나아가 문제를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성을 넘어가기



8월 초 관성을 넘어가기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깨어있기™를 수강이후 마음의 본성에 대한 일별이 있다해도 '관성다루기'는 필요합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그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상(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그 경험세계의 근본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일련의 글을 통해 그 상에 대한 원리를 파악해볼 것이며, 그리고 상이란 일종의 텐세그리티 구조와 같아서, 마음의 스토리가 어떻게 상을 만들고, 느낌을 이루며, 감정을 폭발시키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원리를 알게 되면 무의식의 자동적 프로세스에 빠져들지 않고, 감정을 '느끼며' 초연히 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자세한 글은 '지금여기' 7/8월호 참조).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